

재무적 특성을 이용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영성과 분석

이 종 화*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 II.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III. 연구방법 | <Abstract> |
| IV. 연구 실험 및 결과 | |

I. 서론

최근 몇 년 동안 금융 산업은 기술적 진보의 물결 속에서 빠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차영란, 2021; Feng et al., 2022).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과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발달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큰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객의 은행 이용 행태뿐만 아니라 은행의 경영 방식과 성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홍범, 김준기, 2023).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언제 어디서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며, 이는 고객의 기대 수준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디지털 변환을 가속화하며,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인터넷

뱅킹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조인관 등, 2023; Andreou & Anyfantaki, 2021).

<표 1>는 한국은행(2023)의 보도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의 일평균 이용 건수와 이용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하였다.

네트워크 발달과 스마트 폰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을 나타냈다. 인터넷뱅킹의 일평균 이용 건수는 2017년 835만 건에서 2022년 1,971만 건으로 증가했다. 모바일뱅킹의 일평균 이용 건수는 더 빠르게 성장했으며, 2017년 492만 건에서 2022년 1,684만 건으로 증가했다. 모바일뱅킹의 성장 속도가 인터넷뱅킹보다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으며 2017년에는 인터넷뱅킹 건수 중 58.9%였던 것이 2022년에는 85.4%까지 증가했다. 이는 모바

* 동의대학교 e비즈니스학 전공 교수, jhlee6050@deu.ac.kr(주저자)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구분하여 인터넷뱅킹을 주도하고 있다(구본성, 2023).

지방은행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인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의 강한 연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디지털화의 물결 속에서 이러한 은행들도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국 기반의 시중은행이나 농협은행에 비해 개인 고객을 주거래로 삼기에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으나, 해당지역 금융시장과 지역경제 전체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고지가 아닌 고객들에게도 자사 앱뿐만 아니라 핀테크 앱과 제휴한 상품들을 내놓으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항하고 있다(배수현, 2022; 김경훈, 김남현, 2021).

인터넷전문은행은 디지털 기술의 최전선에서 금융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옥정영 등, 2023). 전통적인 지점 기반의 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리적인 지점을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에게 더 낮은 수수료와 더 높은 이자율로 이어지고 있다(김대원, 2020). 또한, 중금리 신용대출에서 주요 수입을 얻는 모델로 2023년 지방은행과 협업해 대출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동대출모델’을 추진하였다(금융위원회). 이처럼 인터넷뱅킹이 보유한 신용평가모델과 지방은행의 재원을 결합해 공동성장을 통해 시중은행의 과점적 체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협업에 필요한 재무적 특성 조건과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이 기존 금융산업에 영향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이 금융 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1997년 11월, 한국 경제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관리하에 운영되는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하였다. 3년 8개월의 구제 금융 상황에서 은행의 부실 여신 여파로 건전성이 떨어지고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퇴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홍성철, 강연근, 2021).

한국의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지역 기업들에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각종 프로그램 제공 등이 그 역할이다(이세훈, 2020). 지방은행은 해당 지역의 경제 동향과 산업 구조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기업에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병운, 2021; 배수현, 2022). 하지만, 시중은행에 비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문성 또한 시중은행에 비해 제한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은행은 혁신과 발전을 통해 더욱 강화되고 발전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윤지환, 김범수, 2022).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금융지원을 위한 환경 및 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김대원, 2020).

<표 2>는 2022년 말 한국의 지방은행의 재무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지방은행 재무현황을 보면 규모가 제일 큰 부산은행은 80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기업의 자산총액으로부터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액을 자기자본이라 하며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은행 총자산의 합에 7%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지방은행의 무수익여신비율 평균은 0.8%이며 부산은행이 1.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이용하여 효율적 이익의 지표인 ROA(Return On Assets)는 전북은행이 가장 높은 0.86%이며 대구은행이 0.4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주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측정하는 ROE(Return On Equity)는 전북은행이 가장 높은 10.63%이고 제주은행이 3.58%로 평균 4.63%보다 많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총자산 중에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은 평균이 16.28%이면 대부분 지방은행은 큰 차이가 없었다.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은 채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있다(이종화, 이현규, 2023).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을 반영한 선발 주자인 케이뱅크(K bank)는 2017년 4월에 영업을 시작하였고 카카오뱅크(Kakao bank)는 2017년 7월, 그 후발 주자인 토스뱅크(toss bank)는 2021년 10월에 영업을 시작하여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선도하고 있다(김대원, 2020; 최서영, 2023; 주재훈, 런지아, 2020). K bank는 2021년 22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시작으로 2022년 865억 원의 당기순이익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흑자전환을 하였으며

<표 2> 지방은행 재무현황

	총자산 (단위 : 억원)	자기자본 (단위 : 억원)	무수익 여신비율 (단위 : %)	ROA (단위 : %)	ROE (단위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 %)
대구은행	688,461	46,614	0.7	0.48	6.84	16.57
부산은행	800,922	56,007	1.0	0.63	7.58	17.05
광주은행	319,416	20,113	0.6	0.72	9.85	16.49
제주은행	67,663	5,581	0.8	0.27	3.58	-
전북은행	192,848	15,131	0.8	0.86	10.63	14.07
경남은행	533,678	36,679	0.8	0.52	6.74	15.94
합계(평균)	2,602,988	180,125	(0.8)	(0.59)	(7.63)	(16.28)

자료 : 은행경영통계 (2022. 12. 31, 금융감독원)

<표 3> 인터넷전문은행 재무현황

	총자산 (단위 : 억원)	자기자본 (단위 : 억원)	무수익 여신비율 (단위 : %)	ROA (단위 : %)	ROE (단위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 %)
카카오뱅크	312,489	39,827	0.0	0.65	4.87	35.65
케이뱅크	122,435	10,991	0.1	0.18	2.05	18.12
토스뱅크	24,607	2,484	-	-3.28	-32.45	-
합계(평균)	459,531	53,302	(0.0)	(0.32)	(2.64)	(30.92)

자료 : 은행경영통계 (2022. 12. 31, 금융감독원)

<표 4> 이자수의 추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추이
지방은행	66,580	66,455	60,072	61,547	
인터넷전문은행	3,542	5,837	6,711	10,548	

자료 : 은행경영통계 (2022. 12. 31, 금융감독원), 단위 : 억 원

2020년 1,136억 원, 2021년 2,041억 원, 2022년 2,631억 원의 당기순이익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가장 늦은 후발 주자인 토스뱅크는 2022년 2,453억 원의 적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또한 출범 초기 적자를 기록하였다(금융감독원, 2023).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카카오뱅크 39.5조 원, 토스뱅크 23.4조 원, 케이뱅크 16.6조 원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은행 전통은행의 총자산 3,570조 원의 2.2%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총자산의 합은 459,531억 원으로 전체 은행권의 1.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 또한, 전체 53,302억 원으로 총자산순과 동일하다. 토스뱅크의 ROA와 ROE를 살펴보면 -3.28%, -32.45%로 2021년 말에 출범하여 초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판단하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케이뱅크는 지방은행과 비슷한 비율인 18.12%이지만 카카오뱅크는 지방은행 평균의 두 배로 35.65%를 보이고 있다.

<표 4>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자수의 추이를 나타낸 은행경영통계자료를 정리하였다. 지방은행의 이자수익은 2018년 66,580억 원에서 시작하여 2019년에는 소폭 감소한 66,455억 원으로 기록되었으며 2020년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60,072억 원이 되었으나, 2021년에는 다소 회복하여 61,547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자수익은 2018년 3,542억 원에서 시작하여 매년 꾸준히 증가, 2019년에는 5,837억 원, 2020년에는 6,711억 원으로 성장하고, 2021년에는 크게 뛰어 10,548억 원에 도달하였다. 이는 지방은행의 이자수익이 비교적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며, 특히 2020년에 큰 폭

의 감소를 경험한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자수익을 보여준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여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다. 반대로, 지방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업의 변화와 경쟁에 따른 도전에 직면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최서영, 2023). 이러한 추세는 금융 산업 내에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은행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성과와 지방은행의 경영성과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재무특성의 영향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수익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수인 자기자본순이익률(ROE)과 총자산순이익률(ROA)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t 검정을 통해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 특성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ROE와 ROA 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통제변수인 BIS기준 자본자본비율, 업무용 고정자산비율, 총자산자연로그값, 총자산대출금비율, 대손충당금비율, 유가증권보유비율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PL_i = \alpha_i + \beta_1 FIX_i + \beta_2 BIS_i + \beta_3 \leq NDING_i + \beta_4 LNASSET_i + \beta_5 SECURITY_i + \beta_6 NETIN_i + \beta_7 BADD_i$$

PL_i = i 은행의 ROA, ROE
 FIX_i = i 은행의 업무용고정자산비율
 BIS_i = i 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LENDING_i$ = i 은행의 총자산대출금비율
 $LNASSET_i$ = i 은행의 총자산자연로그값
 $SECURITY_i$ = i 은행의 유가증권보유비율
 $NETIN_i$ = i 은행의 순이자수익비율
 $BADD_i$ = i 은행의 대손충당금비율

은행 경영성과(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박종운 등 2019; 박주철, 2011). 박종원 등(2009)는 기업 가치에 복합그룹금융호가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 LNASSET변수를 사용하였고, 최윤이(2020)는 경영전략이 은행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LNASSET, NDING등의 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김훈, 유종민(2008)은 금융지주회사 도입효과 연구에서 BIS, SECURITY변수를 도입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BIS, LNASSET를 채택하였다. 또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독립변수는 FIX, LENDING, SECURITY, NETIN, BADD로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024.1.1 현재 지방은행 6개, 인터넷전문은행 3개 등 9개이다. 재무자료의 이용범위는 2017년에서 2022년까지 6개년으로 하였다. 한국의 경우 1998년에서 2003년까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은행 간 인수·합병이 빈번하였고 공적자금의 투입과 대규모 대손상각 등으로

재무적 성과에서 은행 간 그리고 연도별로 편차가 심한 시기에 해당한다. 재무자료는 은행의 결산 재무제표를 요약 정리해 놓은 은행경영통계(금융감독원 출간)와 금융감독원에 공시되는 개별 은행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다.

IV. 연구 실험 및 결과

본 연구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재무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하여 은행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개년에 관한 재무지표를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재무특성은 6가지로 FIX, BIS, LNASSET, LENDING, SECURITY, NETIN, BADD를 사용하였으며, 경영성과는 ROA와 ROE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t검정,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순으로 나누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t검정 분석

본 연구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재무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성지표인 ROA(Return On Asset)와 ROE(Return On Equity)에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균의 차이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다. ROA는 지방은행 평균 0.3945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은 -0.4953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는 0.8898이다. ROE의 경우 지방은행의 평균은 4.9225이고, 인터넷전문은행은 -14.9850으로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는 19.9075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별 분류에 따른 경영성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ROA t값은 3.5220, p는 0.002로, ROE t값은 4.2990, p는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에는 ROA와 ROE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더 높은 자산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OE는 ‘순이익/자본’으로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알려주는 지표이다. ROA는 자산의 효율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위험성을

<표 5>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 지표

구 분	은행별	평균값(%)	차 이	t값
ROA	지방은행	0.39453	0.890	3.522
	인터넷전문은행	-0.49536		
ROE	지방은행	4.92253	19.908	4.230
	인터넷전문은행	-14.98503		

등분산 가정되는 경우의 t값
 ROA = 당기순이익 / 총자산
 ROE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측정하고 수익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또한 ROE와 ROA의 Gap이 클수록 부채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이는 재무상태가 위험하다는 신호이다. 즉, 지방은행의 재무상태는 양호하나, 인터넷은행은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상태의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 자산의 수익성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차이가 크지 않

으나, 자본의 수익성 부분에서는 지방은행이 자본성장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 수익성 또는 비용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재무특성변수에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6>은 재무특성에 따른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6>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재무특성

구 분	은행별	평균값(%)	차 이	t값
FIX	지방은행	11.9958	9.476	41.665***
	인터넷전문은행	2.5200		
BIS	지방은행	15.9529	3.707	1.355
	인터넷전문은행	12.2456		
LENDING	지방은행	0.7508	0.104	5.901***
	인터넷전문은행	0.6469		
LNASSET	지방은행	19.1398	2.191	9.808***
	인터넷전문은행	16.9488		
SECURITY	지방은행	0.1389	-0.058	-2.874**
	인터넷전문은행	0.1971		
NETIN	지방은행	0.0135	0.005	3.081**
	인터넷전문은행	0.0086		
BADD	지방은행	0.0058	0.002	7.792***
	인터넷전문은행	0.0036		

<표 7> 상관관계분석

구 분	FIX	BIS	LENDING	LNASSET	SECURITY	NETIN	BADD	ROA	ROE
FIX	1								
BIS	0.015	1							
LENDING	0.694 ***	-0.266	1						
LNASSET	0.869 ***	0.590 ***	0.319 *	1					
SECURITY	-0.51 ***	0.673 ***	-0.833 ***	0.073	1				
NETIN	0.364 *	0.258	0.290 *	0.468 **	-0.019	1			
BADD	0.733 ***	0.530 ***	0.352 *	0.823 ***	0.067	0.544 ***	1		
ROA	0.540 **	0.526 **	0.102	0.819 ***	0.219	0.437 **	0.534 ***	1	
ROE	0.505 **	0.690 ***	0.139	0.739 ***	0.203	0.339 *	0.633 ***	0.719 ***	1

재무특성을 살펴보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 은행의 BI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방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비해 업무용고정자산비율이 높고,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총자산 대비 유가증권보유는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낮게 나타났고 이를 통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간의 재무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들은 두 집단의 운영 및 재무특성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4.2 상관관계 분석

<표 7>은 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상관관계 분석은 변수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통계분석기법이다. 상관관계분석은 크기로 측정하며, 상관분석의 기본 목적은 표본의 상관계수로부터 모집단의 상관성을 추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상관성을 추론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표 7>과 같다.

FIX와 LNASSET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각 변수의 VIF가 FIX(1.570), LNASSET(11.430)으로 업무용고정자산비율은 VIF값의 허용한계인 5를 초과하지 않아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총자산의 자연로그값은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종원 등(2009)와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박주철(2011)의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김훈·유종민(2008)은 금융지주회사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용효율성이나 은행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어 BIS와 LNASSET를 통제변수로 도입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재무특성 중 FIX, LNASSET, BADD는 은행의 수익성 지표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은행의 운영 효율성과 자산 및 부채관리, 리스크 관리가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표 8> 지방은행 회귀분석

구분	ROA		ROE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	2.921	0.544	-9.499	-0.127
BIS	-0.004	-0.311	-0.152	-0.801
LNASSET	0.080	0.306	3.446	0.947
FIX	-0.136	-2.252*	-1.385	-1.642
LENDING	-3.808	-2.476*	-48.891	-2.282*
SECURITY	0.684	0.209	-1.742	-0.038
NETIN	25.255	17.738***	312.758	15.766***
BADD	11.896	0.519	40.475	0.127

볼 수 있다.

4.3 회귀 분석

<표 8>은 지방은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 ROA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FIX의 회귀계수는 -0.136, t값은 -2.476으로 지방은행의 업무용 고정자산비율이 RO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LENDING의 회귀계수는 -3.808, t값은 -2.476으로, 지방은행의 총자산대출 비율도 RO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NETIN의 회귀계수는 25.255, t값은 17.738로, 지방은행의 순이자수익비율은 ROA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 외 독립변수인 SECURITY와 BADD는 회귀계수와 t값은 ROA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ROE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LENDING는 회귀계수 -48.891, T값은 -2.282로, 지방은행의 총자산 대출비율이 ROE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ROA와 마

찬가지로 NETIN의 회귀계수는 312.758, T값은 15.766으로, 지방은행의 순이자수익비율은 ROE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FIX, SECURITY 및 BADD는 회귀계수와 t값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NETIN은 ROA와 ROE에 대해 매우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의미한 변수이다. 반면 LENDING는 두 수익성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FIX도 ROA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표 9>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종속변수 ROA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SECURITY는 회귀계수 -6.634, t값은 -2.252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유가증권보유 비율은 RO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통제변수인 LNASSET는 회귀계수 1.508, t값은 4.751로, 총자산을 자연로그한 값은 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클수록 종속변수인 ROA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속변수 ROA에 FIX, LENDING, NETIN, BADD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ROE

<표 9> 인터넷전문은행 회귀분석

구분	ROA		ROE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	-24.912	-4.580	-354.008	-1.440
BIS	0.012	0.523	1.720	1.678
LNASSET	1.508	4.751**	21.059	1.468
FIX	0.239	1.662	9.061	1.395
LENDING	-0.447	-0.216	-31.828	-0.341
SECURITY	-6.634	-2.252*	-208.901	-1.569
NETIN	20.922	0.816	-320.642	-0.277
BADD	-160.602	-1.489	-641.803	-0.132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NASSET가 ROA에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이며, 지방은행과 다르게 SECURITY는 RO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재무 특성들이 은행의 수익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지방은행의 순이자수익비율은 수익성 지표 ROA, ROE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순이자수익률이며,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대출 등을 통해 얼마나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판단할 때 순이자수익률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재무 특성 중에서 유가증권보유비율이 RO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유한 유가증권의 규모가 커질수록 투자를 통해 거둔 실적은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의 가치도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4 추가 분석

본 연구는 은행의 재무적 특성이 수익성 지

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회귀 분석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지방은행은 선행연구와 같이 3개의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유가증권보유 비율만이 ROA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재무특성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재확인하고자 추가 자료를 수집하여 재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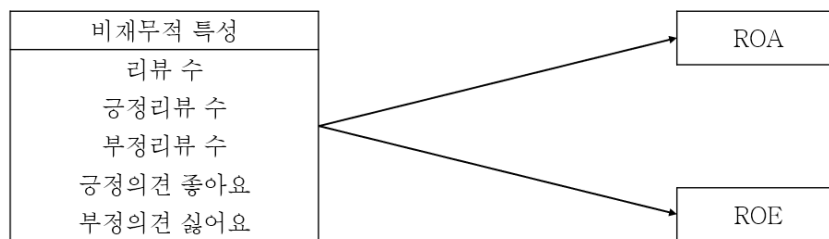
비재무적 특성 분석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앱을 활용하였다. 구글 플레이가 제공하는 앱 사용 후기 댓글 11,261개를 수집하여 긍정과 부정 리뷰, 그 해당 댓글에 ‘좋아요’의견 수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추가 연구에 대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AMOS 26를 이용하여 경로 분석한 결과 자유도가 ‘0’으로 포화모형을 의미하여 해당 데이터에 대한 완전 적합된 모형으로 나타났다. 비재무특성과 경영성과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으로 추정한 결과 계수는 다음 <표 10>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비재무적 특성은 경영성과인 종속변수 ROA와 ROE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A의 경우 리뷰 수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그림 1> 비재무적 특성 추가연구모형

<표 10> 비재무특성과 경영성과 관계

ROA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리뷰수	-0.015	0.000	-9.444	-1296.728***
긍정리뷰수	0.015	0.000	7.703	1556.515***
부정리뷰수	0.017	0.000	5.977	3209.333***
긍정의견 좋아요	0.000	0.000	0.493	289.887***
부정의견 싫어요	0.000	0.000	-0.755	-357.250***
ROE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값
	B	표준오차	베타	
리뷰수	-1.098	0.000	-23.176	-4838.416***
긍정리뷰수	1.129	0.000	19.674	6068.963***
부정리뷰수	0.589	0.000	7.003	5738.865***
긍정의견 좋아요	-0.006	0.000	-0.249	-222.509***
부정의견 싫어요	0.058	0.000	6.198	4472.694***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고객의 의견이 많을수록 관리와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리뷰 수’는 ROA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고객 만족도가 높을수록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또한 ‘부정적인 리뷰 수’도 ROA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정적 피드백을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긍정의견 좋아요’가 많을수록 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긍정적인 고객 의견이 잘 받아들여질수록 기업의 이미지와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나타낸다. 또한 ‘부정의견에 대한 싫어요’ 수가 많을수록 ROA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 의견이 널리 공

감을 얻을수록 기업의 이미지 및 성과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무적 특성이 RO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ROA와 마찬가지로 리뷰 수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긍정리뷰 수’와 ‘부정리뷰 수’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긍정의견 좋아요’는 미미하지만 ROE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부정의견 싫어요’는 반대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객 피드백의 양과 성질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고객 리뷰와 관련된 비재무적 특성 변수들은 고객 반응의 복잡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재무적특성이 경영성과 지표인 ROA와 ROE에

미치는 영향에 다른 결과를 나타낸 것은 ROA는 경영자관점의 경영성과지표이며, ROE는 부채비율까지 포함한 주주관점의 경영성과지표로써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ROA는 자산 대비 수익성을 나타내며, 고객 리뷰의 양과 질이 기업 운영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긍정적 리뷰’와 ‘부정적 리뷰’ 모두 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피드백이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ROE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수익성을 나타내며, 주주의 관점에서 경영성과를 평가한다. ‘리뷰 수’의 증가가 ROE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긍정적, 부정적 리뷰 수와 긍정적 반응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고객 의견이 기업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주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분석 결과 모두 고객 리뷰와 반응이 재무적 경영성과와 주주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고객 경험관리가 기업 성공의 핵심임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영성과 분석을 통해 재무적 특성을 비교하고자 연구하였다. 즉,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의 경영성과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들 은행 유형의 재무적 특성이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설계하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사용하여 두 은행 유형 간의 경영성과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t 검정을 통해 두 그

룹 간의 평균 차이를 확인하며, 재무적 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통제 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제 변수로는 BIS기준 자본비율, 총자산 자연로그값, 독립변수로는 업무용 고정자산비율, 총자산 대출금 비율, 대손충당금 비율, 유가증권 보유 비율, 순이자수익비율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은 은행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데이터 범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로, 한국의 지방은행 6곳과 인터넷전문은행 3곳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위한 데이터는 은행경영통계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제공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t검정 분석 결과로 지방은행의 ROA 평균은 0.3945, 인터넷전문은행은 -0.4953으로, 두 집단 간 평균 차이는 0.8898이며 ROE의 경우 지방은행은 4.9225, 인터넷전문은행은 -14.9850으로, 차이는 19.9075이다. 이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의 수익성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로 지방은행에서는 순이자수익비율이 ROA와 ROE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유가증권보유비율이 RO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재무특성이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재확인하고자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재무적 특성 외에도 비재무적 특성이 은행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하였으며 비재무 특성인 ‘리뷰수’, ‘긍정리뷰수’, ‘부정리뷰수’, ‘긍정의견 좋아요’, ‘부정의견 싫어요’ 모두가

ROA, ROE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재무적 관점에서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성과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첫째,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의 ROA와 ROE 지표의 차이는 각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전략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ROA와 ROE를 보인 것은 전통적인 은행 비즈니스 모델과 지역 기반의 고객 서비스가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낮은 수익성 지표는 신규 시장 진입자로서 초기 투자 비용과 경쟁적인 시장 환경에서의 가격 경쟁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은행들이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인사이트로 작용된다.

둘째, 회귀 분석 결과는 특정 재무적 특성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지방은행에서 순이자수익비율이 ROA와 ROE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통적인 이자 수익 모델이 여전히 중요함을 의미한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유가증권보유비율이 ROA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시장 변동성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은 은행들이 자산 구성, 수익 창출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셋째, 추가분석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고객 만족도와 경영성과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은 이들 은행이 디지털 기술과 고객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여 수익성을 높이는지 이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 만족도는 서비스의 질, 사용의 용이성, 제품의 다양성 등 다양한 비재무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이는 고객 충성도와 직결되어 장기적인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에도 집중하여 기업의 가치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간의 경영성과 차이뿐만 아니라 재무적 및 비재무적 특성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향후 연구를 남기고 있다.

먼저, 장기적인 경영성과 및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간을 거쳐 발생하는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비재무적 지표 분석이 필요하다. 고객만족도, 브랜드 가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등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디지털 금융 기업에 매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성, “최근 금융시장의 역전과 국내 금융산업의 향후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제31권, 제15호, 2022, pp. 3-8.
- 김 훈, 유종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효과 분석과 발전방향,” 조사통계월보, 2008, pp.

- 23-58.
- 김경훈, 김남현, “국내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재무연구, 제34권, 제3호, 2021, pp. 65-91.
- 김대원,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성과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8권, 제2호, 2020, pp. 69-84.
- 박종원, 박래수, 장욱, 고종권, 정혜정, “복합금융그룹화가 금융그룹 및 소속금융회사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 금융연구, 제23권, 제2호, 2009, pp. 97-131.
- 박주철,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경영성과 차이,” 세무회계연구 제28권, 2011, pp. 1-17.
- 배수현, “국내은행의 유가증권 자산운용이 경영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제36권, 제5호, 2022, pp. 53-70.
- 오형근, “코로나 19 이후 주요 사회변화와 정보보안 이슈 분석,” 정보과학회지, 제38권, 제9호, 2020, pp. 48-56.
- 육경영, 서인주, 조혜진, 김성숙, “Z 세대 소비가치와 소비자 금융역량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ESG 평가에 미치는 영향,”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6권, 제4호, 2023 pp. 23-49.
- 윤지환, 김범수, “핀테크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연구, 제23권, 제1호, 2022, pp. 93-121.
- 이광규,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보안 문제점 개선 방안,”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45권, 제10호, 2020, pp. 1720-1727.
- 이병윤, “지방은행의 경영환경과 향후 과제,” 주간금융브리프, 제30권, 제25호, 2021, pp. 3-10.
- 이세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정책 방향,” 글로벌금융리뷰, 제1권, 제1호, 2020, pp. 31-50.
- 이종화, 이현규, “인터넷전문은행의 소비자 만족에 관한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 앱 사용 후기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제32권, 제3호, 2023, pp. 151-164.
- 이하리, 윤재영, “온라인 서비스의 다중 인증 로그인에 대한 사용자 경험 연구,” 한국 HCI 학회 논문지, 제18권, 제3호, 2023, pp. 5-18.
- 이홍범, 김준기, “융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술혁신과 규제 정책과정 분석: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정에서의 은산분리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제23권, 제3호, 2023, pp. 71-99.
- 조인관, 박수경, 이봉규, “디지털뱅킹 정기예금의 소비자 행동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은행 충성고객을 중심으로,” 서비스연구, 제13권, 제2호, 2023, pp. 130-145.
- 주재훈, 런지아,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정보시스템연구, 제29권, 제3호, 2020, pp. 77-101.
- 차영란,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4 차 산업혁명과 광고의 뉴스기사 분석: LDA 와 Word2vec 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9호, 2021, pp. 149-163.
- 최서영, “MZ 세대의 은행 선택속성 연구-대형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54권, 제1호,

2023, pp. 63-95.

최윤이, “광고선전비가 재무보고의 불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35권, 제5호, 2020, pp. 481-500.

홍성철, 강연곤, “포털 뉴스의 등장과 한국 신문 산업의 20 년 변화,” 언론과학연구, 제21권, 제3호, 2021, pp. 51-88.

Andreou, P. C., Anyfantaki, S., “Financial literacy and its influence on internet banking behavior,” European Management Journal, Vol, 39, No. 5, 2021, pp. 658-674.

Feng, S., Zhang, R., Li, G., “Environmental decentralization, digital finance and green technology innovation,” Structural Change and Economic Dynamics, Vol. 61, 2022, pp. 70-83.

Mogos, G., Jamail, N. S. M., “Study on security risks of e-banking system,” Indonesian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Vol. 21, No. 2), 2021, pp. 1065-1072.

Raza, S. A., Umer, A., Qureshi, M. A., & Dahri, A. S., “Internet banking service quality, e-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the modified e-SERVQUAL model,” The TQM Journal, Vol. 32, No. 6, 2020, pp. 1443-1466.

Rossi, F. D., Hohemberger, R., Konzen, M. P., Temp, D. C., “E-banking security: threats, challenges, solutions, and trends,” In Research Anthology on Concepts, Applications, and Challenges

of FinTech, 2021, pp. 385-397.

이 종 화 (Lee, Jong Hwa)



부경대학교 경영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동의대학교 정보경영학부 e비즈니스학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요 관심분야는 Data Mining, FinTech, Digital Finance 등이다.

<Abstract>

Analyzing the Business Performance of Internet Primary Banks and Local Banks Using Financial Characteristics

Lee, Jong Hwa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impact of the development of fintech and the emergence of internet primary banks due to the increasing use of smartphones on the performance of traditional local banks from bo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perspectives. Return on equity (ROE) and return on assets (ROA) are used to assess the performanc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ypes of banks and how these differences are affected by their financial characteristics.

Design/methodology/approach

Using return on equity (ROE) and return on assets (ROA) as indicators, we identified the differences in operating performance between the two types of bank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sed the impact of financial characteristics on profitability through regression analysis with various control variables. We further studied the impact of non-financial characteristics (customer reviews, social media reactions, etc.) on operating performance.

Findings

The net interest margin ratio of local banks had a positive impact, while the marketable securities ratio of Internet primary banks had a negative impact. The non-financial analysis shows that the number of customer reviews and social media reaction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formance of Internet primary banks, suggesting that customer satisfaction and positive market perception are important factors in the performance of Internet primary banks.

Keyword: Internet Primary Banks, Local Banks, Performance, Financial Characteristics, Non-financial Characteristics

* 이 논문은 2024년 2월 26일 접수, 2024년 3월 6일 1차 심사, 2024년 3월 12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